

금호 페놀 15만톤 증설 “LG와 맞대결”

페놀 · 아세톤 수입대체 효과 ... BPA 생산원가 절감해 가격경쟁력 보완

금호P&B화학이 BPA(Bisphenol-A) 가격경쟁력 보강을 위해 큐멘(Cumene), 페놀(Phenol), 아세톤(Acetone) 증설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신설공장의 생산능력은 큐멘 40만톤, 페놀 15만톤, 아세톤 9만톤으로 2004년 10월 완공해 2005년 1월 가동을 개시하고 본격적인 생산은 2005년 1/4분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.

신설공장이 완공되면 금호P&B화학은 큐멘 생산능력이 49만톤, 페놀은 25만5000톤, 아세톤은 15만30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.

금호P&B화학은 BPA 13만5000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생산기업으로 2002년 이후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원료 아세톤과 페놀의 40%와 50%를 수입해 왔다.

따라서 큐멘에서 BPA까지 수직계열화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2004년 페놀과 아세톤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금호P&B화학이 증설을 결정한 것은 2005년 LG석유화학의 네폴 및 BPA 공장이 완공되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

LG석유화학의 BPA 생산설비 투자는 주 수요기업인 LG-Dow Polycarbonate에 안정적으로 BPA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호P&B화학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.

이에 따라 2005년 BPA 시장은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태이다.

또 주 수요처인 PC(Polycarbonate) 가격이 IT 경기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 톤당 3000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1500-17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마진폭이 적다는 점도 금호P&B화학의 신규투자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<한기석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2/19>